

장성군 '가루쌀' 재배 면적 22배 늘린다

재배·가공 쉬워 '밀가루 대체' 작물 각광... 내년 60ha로 확대 농업 소득 안정 위해 올해 전량 공공비축 "쌀 문제 완화 기대"

장성군이 벼 대체 소득작물로 떠오르는 '가루쌀' 생산 증대를 본격 추진한다.
가루쌀은 가루를 내기 적합한 분질을 지녀 분질 미로도 불리며 밀가루 대체 작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물에 불리지 않고도 바로 쌀을 수 있어 가공 작업이 용이하다.
최근 밀 대신 쌀가루를 찾는 수요가 늘어 산업 전망도 밝다. 각종 가공식품 원료로 두루 쓰인다.
기존 벼 재배와 동일한 농법으로 재배가 가능해 농가의 진입장벽이 낮은 것도 장점이다.
장성에선 그동안 2.7ha가량 재배했으나 추후 규모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장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가루쌀 전문 재배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20여 농가

60ha까지 재배 규모를 늘릴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의 가루쌀 재배 활성화 방침에 따라 재배 농가 지원도 확대된다.
가루쌀 재배단지를 대상으로 '농업인 교육', '전문가 현장 상담',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 등을 추진한다.
올해 수확한 가루쌀은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전량 공공비축미로 매입한다. 가격은 일반 공공비축미와 같다.
최근 수확 현장을 찾은 김한중 장성군수는 "가루쌀 재배가 작금의 쌀 소비 감소와 과잉생산 문제를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계획대로 재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업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김한중(가운데) 장성군수가 지난 27일 장성 북이면 가루쌀 수확 현장을 방문하여 농가를 격려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화순 고인돌 꽃 축제 연장 내달 5일까지 관람 가능

화순군이 '2023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 기간을 1주일 연장 운영한다.
고인돌 유적지 전역(도곡면 효산리, 춘양면 대신리)에서 20일 개막한 축제는 당초 29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절정을 뽐내고 있는 코스모스, 해바라기와 달리 국화는 아직 절반의 개화만 진행중이어서 주최측은 11월5일까지 1주일간 축제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공연, 전시, 판매,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지만 연장 기간엔 이들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으며, 국화꽃 조형물 등 관람형 축제에만 연장 운영한다.
연장된 축제 기간에도 축제장인 고인돌 유적지 내에는 차량 이동이 제한되며, 축제장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후 걸어서 축제장 곳곳을 관람할 수 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강진군 '주거+일자리' 임천지구 조성 방안 논의

귀농인 커뮤니티 공간·일자리 연계 소득 창출·생태마을 등 농업진흥지역 감안 허용 용도 위주 토지이용계획 수립키로

강진군이 농업진흥지역 비중이 36%에 달하는 임천지구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강진군은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서순철 강진군 부군수 주재로 '임천지구 신규 마을 조성사업 조사 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보고회에는 주민추진위원회 구성원과 용역사(주)도화엔지니어링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임천지구 신규 마을 조성사업은 민선 8기 역점사업 가운데 하나이다.
올해 5월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1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강진군은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열어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들었다.
이후 조사설계용역 수행업체를 사업수행능력 평가와 입찰을 통해 선정했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마을정비 계획과 사업시행 계획(기본·실시설계), 한지 계획 등이 포함됐다.
개발 방향으로는 ▲지역 특성을 살린 정주 공간 마련 ▲기존 주민과 귀농·귀촌인이 어울려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 도입 ▲강진군 특화 일자리와 연계한 임주민 소득 창출 ▲수(水)공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수변 생태마을 조성 등이 있다.
마을 안길을 조성할 때는 입주자의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 단차, 산지 형태를 고려할 방침이다.
임천지구 대상지는 농업진흥지역이 36%를 차지한다.
신규 마을 조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받는 과정이 오래 걸릴 것을 대비해 강진군은 농업보호구역 내 허용 용도 위주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지 않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면 해당 구역을 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이나 농장용지, 관광농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임천지구 귀농·귀촌인이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도록 해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수 있다고 강진군 측은 설명했다.
강진군은 한지방식으로 마을 조성을 추진하는 데 주민 동의가 중요한 만큼 지속해서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또 이번 조사설계용역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의 기본계획과 연계해 추진한다.
체류형 농촌체험인 '푸소'와 목은지 사업, 첨단농장(스마트팜), 도에 등 강진의 장점을 활용한 입주자 모집 방안도 마련한다.
서순철 부군수는 "주민추진위원회, 강진군, 용역사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의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장흥군(군수 김성·가운데)이 최근 미국 수출을 기념한 '장흥무산김스낵' 제품 출시행사를 열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장흥무산김으로 만든 과자 미국 시범 수출

장흥군이 장흥무산김으로 만든 과자를 출시했다.
장흥무산김스낵은 장흥 특산물 공동연구와 산업화 지원을 통해 수출을 목표로 제작됐다.
지난해 12월 장흥군과 장흥무산김(주), (주)뉴트리원, 재단법인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은 업무협약을 맺어 상품 제작을 함께 했다.
6차례 회의에 걸쳐 제품 생산을 위한 조리법을 개발하고 제품 결면을 정했다.
장흥군은 이 상품 6000봉지(5000달러 상당)를 미국에 시범 수출했다.
이번에 출시된 장흥무산김스낵에는 표고버섯과 그린커피빈 등도 첨가했다.
장흥군은 최근 제품 출시회를 열고 상품의 시장성을 평가했다.
출시회에는 김성 장흥군수, 장용철 장흥무산

김(주)대표, 강남길 (주)뉴트리원 본부장, 박승배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속해서 장흥 표고버섯 등 장흥 특산물 공동연구와 산업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수출된 제품의 유통을 맡은 (주)뉴트리원은 지난해 28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건강기능식품 유통 전문판매 기업이다.
장흥무산김(주)는 지난 2008년에 설립된 수산식품 가공회사로, 김스낵-재래김을 판매하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지역특산물의 산업화를 통해 장흥특산물이 세계시장에 더욱 많이 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미국 수출을 발판삼아 장흥표고와 무산김이 국내를 대표하는 친환경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2천년 역사도시 나주 여행' 나라장터서 만나세요

마한역사·인물·누정 탐방 등 나주시, 관광상품 5종 판매 1인 4천원·20인 이상 버스 제공

'2000년 역사문화도시' 나주를 즐길 수 있는 관광상품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선보여진다.
나주시와 광주지방조달청은 나주 역사문화 여행 관광상품을 조달청 종합 쇼핑몰 '나라장터'(g2b.go.kr)에 등록·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나라장터에서 만날 수 있는 나주 여행상품은 '마한역사문화탐방', '근대역사문화탐방', '나주 인물탐방', '나주누정탐방(1)', '나주누정탐방(2)' 등 5종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나주의 역사적인 장소와 유적을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둘러볼 수 있다.
여행은 일주일에 화·수·목·토·일요일 5차례 떠난다. 상품별 최소 10인 이상 개인·단체 예약이 들어오면 버스를 타고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이번 여행에서는 나주 출신이거나 나주와 인연이 있는 역사적 인물의 생애와 업적을 들여다볼 수 있다.
임진왜란 당시 최초 근왕의병을 일으킨 의병장 김천일(정렬사), 거북선을 제조한 선박 과학자 나대용(소총사), 나주에 유배돼 조선 건국 이념인



나주시는 빼어난 경관을 지니는 '석관정' 등 나주 누정과 인물, 역사문화를 탐방할 수 있는 여행상품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내놓는다. 나주 제1정 석관정 전경. <나주시 제공>

민본 사상을 정립한 정도전(삼봉 유배지), 조선의 천재 시인 임제(백호문관) 등을 만날 수 있다.
성인 1인 기준 이용료는 4000원이다. 20인 이상 단체는 12만원에 단체 버스를 제공한다. 청소년·장애인·경로·군인의 경우 50%를 할인해준다.
체험료, 숙박·식비는 자부담이다.
나주 역사여행을 떠나려면 조달청 나라장터 누리집 종합쇼핑몰 서비스 중 지역여행상품에서 여

행서비스(나주시)를 선택하면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관광뿐만 아니라 나주의 역사·문화, 인물을 배울 수 있어 학생들의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에 적합한 나주 여행상품을 출시했다"며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을 통한 전국적인 홍보로 많은 관광객이 역사문화관광 1번지 나주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화순천 꽃강길서 힐링을

군, 오늘 준공식...음악 분수대·야간 경관 보도교 설치

화순천 꽃강길 조성사업이 마무리됐다.
화순군은 31일 오후 6시 화순천 꽃강길 음악 분수대 앞에서 '화순천 꽃강길 조성 사업 준공식'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공약 1호 사업이다.
지난 2월 착공한 이후 8개월에 걸친 1단계 공사를 마무리했다.
화순천 꽃강길에는 음악 분수대와 야간 경관 보도교가 설치됐다.
준공 기념식은 식전 공연과 기념행사, 음악 분수

대 시연 등으로 진행된다. 화순천 꽃강길 조성에 큰 보탬이 된 이들에게는 감사패를 준다.
음악 분수대 시연에서는 5곡의 선율이 약 20분간 퍼진다.
화순군 관계자는 "화순천 꽃강길은 화순천의 아름다운 경관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분이 화순천 꽃강길을 거닐고 즐기며, 힐링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배영희 기자 byj@kwangju.co.kr



화순군이 '화순천 꽃강길 조성'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31일 준공식을 연다. 사업 조감도. <화순군 제공>

함평군 "반세기 함께 한 부부 축하합니다"

'국향 장수부부 금혼식' 개최

함평군이 지난해에 올해 세 쌍 부부의 금혼식(金婚式)을 열어 지역 가정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했다.
'2023 국향 장수부부 금혼식'은 지난 28일 함평엑스포공원 주 무대에서 열렸다.
이날 금혼식에는 세 쌍의 부부가 참여했다.
금혼식은 부부의 소중함과 화목한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혼인 후 50년이 되는 해를 축하하는 의식이다.
함평군은 황혼 이혼과 가족 해체가 늘어나는

시대에 반세기 이상 함께한 부부의 결혼 생활과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기고자 이 행사를 마련했다.
행사는 가족·친지와 군민, 관람객들의 축하 속에서 교배례, 함평군 등 전통 혼례 방식을 재현하며 치러졌다.
이상의 함평군수가 혼례 성사를 하늘에 고하는 고전문을 낭독하며 부부의 행복을 축원했다.
이 군수는 "오랜 시간 동고동락하며 걸은 부부의 길을 앞으로도 더욱 끈끈한 정으로 건강하게 함께 걸어갈기 기원한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2023 국향 장수부부 금혼식'에 참여한 세 쌍의 부부와 이상익(가운데) 함평군수가 지난 28일 전통 혼례를 치르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